

민 정 실	음 진 천
-------------	-------------

# BUDDHANARA

**우리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 첫째주 일요일 11시 신년법회 (세알법회)
- 둘째주 일요일 11시 성도제일 철야정진 (1월 7일 입재 1월 8일 회향)
- 셋째주 일요일 11시 인등기도 법회
- 넷째주 일요일 11시 반야심경 사경법회

불국사 콜롬비아 지역 범등 법회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Sun Meeting -

Every Saturday 10am. (매주 토요일 10시)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 이달의 범구경:
-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고,  
부처님의 제자에게 귀의하면,  
진실로 네 가지 진리를 볼 수 있네.

He who goes for refuge to Buddha, to Truth and to those whom he taught, he goes indeed to a great refuge. Then he sees the four great truths.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도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http://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6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 “자비마음 온 세상 가득 채워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신년사 발표 ... “아집 버리고 남을 배려하는 민주시민되길” 강조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이 불기 2550 년(2006 년)을 새해를 앞두고 신년사를 발표했다.

오늘(27 일) 미리 발표된 신년사에서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우리 마음 속에 남아있는 갈등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화해와 협력의 장을 만들어가자”면서 “온갖 분노와 증오를 씻어버리고 자비의 마음을 온 세상에 가득 채워가자”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이 없어지고, 일을 하고자 하는 이들은 제 자리에서 즐겁게 맡은 바의 일을 하며, 공부를 하고 싶은 젊은이들은 힘차게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면서 “우리 모두 아집을 버리고 남을 배려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민주시민이 되자”고 당부했다.

이어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내 한 몸의 성불은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중생을 모두 제도하겠다는 대승보살의 대원력이 온 세상에 충만할 때까지 우리 모두 온 정성을 기울여 기도하자”면서 “나 혼자만 편안하게 살기 위한 이기적인 삶과 전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이타적 삶의 양극단을 모두 여의고, 자신과 사회 모두를 이롭게 하는 자리아타의 보살도를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다음은 오늘 발표된 총무원장 지관스님의 신년사 전문이다.

### 신년사

병술년(丙戌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나라 안과 밖에 사시는 동포(同胞)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希望)이 가득하고 민족(民族)의 밝은 미래를 여는 날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부처님께 기원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을유년(乙酉年)은 국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남과 북 사이에 화합(和合)으로 가는 큰 길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남과 북, 그리고 해외의 동포들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얼싸안고 춤을 추며 ‘한 핏줄’임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적으로는 여야(與野), 진보와 보수,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서로 다른 종교와 이념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과 배울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 사이의 갈등(葛藤)과 지역간 이해를 둘러싼 갈등의 틈이 좁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깊어지고 넓어져 극한(極限) 대립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전쟁과 테러, 반(反)-테러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환경오염이 가져오는 재앙(災殃)이 끝날 줄 모르고 이어지며 전 인류를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희망(希望)의 빛과 갈등(葛藤)의 어두움이 교차했던 지난 을유년을 역사 속으로 보내고 새롭게 맞이한 병술년 새해에는 세상 곳곳에 희망의 밝은 빛이 환하게 비치고, 맑은 향기가 피어나기를 삼보전에 기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갈등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화해(和解)와 협력(協力)의 장을 만들어갑시다. 온갖 분노(忿怒)와 증오(憎惡)를 씻어버리고 자비(慈悲)의 마음을 온 세상에 가득 채워갑시다.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이 없어지고, 일을 하고자 하는 이들은 제 자리에서 즐겁게 맡은 바의 일을 하며, 공부를 하고 싶은 젊은이들은 힘차게 학업(學業)에 정진(精進)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우리 모두 아집(我執)을 버리고 남을 배려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민주시민(民主市民)이 됩시다. “내 한 몸의 성불(成佛)은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중생(衆生)을 모두 제도(濟度)하겠다”는 대승보살(大乘菩薩)의 대원력(大願力)이 온 세상에 충만(充滿)할 때까지 우리 모두 온 정성을 기울여 기도합시다.

나 혼자만 편안하게 살기 위한 이기적(利己的)인 삶과 전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이타적(利他的) 삶의 양극단(兩極端)을 모두 여의고, 자신과 사회 모두를 이롭게 하는 자리아타(自利利他)의 보살도(菩薩道)를 실천합시다.

가정은 그 자체가 소우주(小宇宙)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웃음이 넘쳐나면 온 세계가 항상 즐거움이

가득하고 멋진 축제의 마당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시길 다시 한 번 기원 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

## 지구촌공생회 ‘캄보디아 라오스 교육.의료봉사’ 현장을 가다

### 한국 불자들이, 학교 세워 캄보디아 희망 밝힌다

지역 어린이 200명 전원 수용 규모 내년 2월 개교, 현대식 시설 자랑

지구촌공생회는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인도, 몽골, 러시아 등 7개 국가에서 교육 및 의료지원사업을 펼치며 한국불교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는 라오스와 캄보디아, 베트남 현지에서 공생유치원 및 보건소 개원식과 초등학교 상량식 등을 잇따라 가졌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빈민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하다보니 이들 지역민들에서 인기만점이다. 이번 순례에는 지구촌공생회 대표이사 월주스님을 비롯해 김제 금산사 주지 원행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평상·학담·일화스님, 전북불교회관 원감 덕림스님 등 10여명이 동참했다.

“쑹 싸바이(안녕하세요)” “쭈닙수(반갑습니다)”

지난 14일, 1000여명의 캄보디아 캄푹주 품크나이 지역민들이 마을 입구까지 나와 지구촌공생회 해외지원사업장 순례단 일행을 반갑게 맞았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동남부방향으로 5시간 넘게 승합차로 달려간 순례단은 뜻밖의 환영인파에 피곤함도 잊은 채 합장하며 서툰 캄보디아어로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20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품크나이마을은 구호단체의 손길도 닿지 않는 오지 중의 오지마을이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90%이상이 5km 떨어진 국경을 몰래 넘어 가 베트남에서 일용직노동자로 일하며 하루에 1~2개의 식사만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이어가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는 곳이다. 지난 14일 상량식을 가진 품크나이 공생초등학교는 600여평의 부지에 교사 3개 동이 새롭게 들어서면 200여명의 지역 초등학생 전원을 수용하게 된다.

내년 2월 정식 개교를 목표로 현재 6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공생초등학교가 문을 열면 이 지역 어린이들은 캄보디아 전역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좋은 학교시설과 교육기자재를 통한 질 높은 초등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품크나이마을 어린이들은 6개월 이상 쉴 새 없이 비가 내리는 우기(雨期)에도 책가방을 머리에 이고 물길을 힘겹게 뚫으면서 5km 떨어진 인근마을의 초등학교로 다녀야 했던 만큼 공생초등학교 완공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열린 상량식에서 지구촌공생회 대표이사 월주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앞으로 학교가 완성되면 이곳은 지구촌공생회의 학교가 아니라 바로 품크나이마을 여러분들의 학교가 된다”면서 “항상 여러분이 주인임을 잊지 말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훌륭한 사람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마을 주민을 대표해 변띠에미에군 김림 부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이 학교 출신 어린이들이 캄보디아를 한국처럼 발전된 나라로 만드는 큰 일꾼이 되도록 잘 키워나가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지구촌공생회는 지난 15일 캄보디아 간달주 끄랑야오마을에서 ‘공생유치원 개원식’을 가졌다. 끄랑야오 공생유치원은 2개반에 빈민층 가정의 자녀 60여명을 수용하고 있다.

공생유치원은 캄보디아의 수많은 유치원 가운데 유일하게 수업료와 점심공양비 등이 없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책과 스케치북 등 학용품도 무료로 지급하고 있다.

## 탐방 안성 도피안사 100 일 구도법회

“내가 변하면 주변도 바뀝니다”



사진설명: 100 일 구도법회에 동참한 불자들이 1 만배 정진기도를 하고 있다.

매일 집에서 108 배  
매달 첫 토요일 모여 3000 배 구도법회 갖고  
셋째 토요일 1 만배 정진  
어지럽던 마음도 정리  
몸도 마음도 맑아지는 느낌...

지난 17 일, 영하 10 도를 넘는 한파속에 안성 도피안사(주지 송암스님)를 찾았다. 차에서 내려 조금만 서 있어도 차가운 바람은 온몸을 훑고 지나간다. 도피안사 법당으로 향했다. 서양화로 사천왕을 그려 놓은 계단을 따라 법당에 올라서니, 20 여명의 불자들이 반팔 차림으로 ‘나무아미타불’ 소리에 맞춰 1 만배 정진기도를 하고 있었다.

“나무아미타불” 죽비 대신 울리는 염불소리에 대중들이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하며 절을 한다. 17 일 0 시에 입재해 24 시까지 꼬박 24 시간 정진하는 중이다. 50 분 참회정진에 10 분

휴식. 방석위에 깔아 놓은 수건위로 땀이 가득 배여 있었다. 도피안사가 ‘절 수행’을 시작한 것은 지난 11 월 5 일. 오는 2 월 12 일까지 동안거 결재에 맞춰 100 일간 정진을 시작했다. 참회정진은 주지 송암스님이 “참선에 들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워내는 참회정진을 먼저 해야 한다”며 제안해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매일 집에서 108 배나 300 배 수행을 하며, 매달 첫째 토요일 오후 9 시 아라한전에 모여 3000 배 구도법회를 갖고 있다. 또 셋째 토요일에는 0 시부터 24 시간동안 1 만배 참회정진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딱 딱 딱” 죽비소리가 울리자 비로소 대중들이 자리에 앉는다. 각자 준비한 음료수를 마시며, 다리를 주무른다.

“매일 아침에 108 배를 올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절을 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점차 절을 하면 갖은 망상도 잊혀지게 되더군요. 요즘은 절을 하면서 내가 남은 생애 중생구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서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68 세인 김삭순씨는 허리가 좋지 않다. 예전에는 그나마 일어서기도 힘들 정도였단다. 하지만 108 배 기도수행을 하면서 이제는 생활에 큰 불편이 없어졌다.

“3000 배 기도를 108 번 마치고 나서 참선수행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수행을 시작하면서 어지럽던 마음도 정리됐고, 몸도 마음도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직장인 김희천(수원 우만동)씨는 지난 1998 년 IMF 당시, 채무보증으로 인해 적지 않은 마음고생을 해야 했다. 이때 찾은 곳이 사찰. 절하는 법도 몰라 옆사람을 보며 삼배를 올리고, 한참을 법당에 앉아 있다가 점차 불교에 귀의하게 됐다. 매일 108 배 정진을 하고, 매달 말 토요일이면 3000 배 정진을 하고 있다는 김씨는 “내가 변하면 주변도 바뀐다”며 웃음을 지어 보였다.

1 만배 정진의 고비는 새벽시간. 힘들기도 하지만 졸음이 쏟아져 참기가 어렵단다. 임미순(50, 경기 성남 분당)씨는 “새벽에는 그만 둘까 갈등을 많이 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이기는 데서부터 수행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에는 여러 길이 있다. 화두를 부여잡고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참선수행에서부터 염불선, 목조선 등 다양한 수행법이 전해오고 있다. 도피안사주지 송암스님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수행법을 찾고, 꾸준히 수행하는 것이 제일 좋다”며 “매달 20 여명의 불자들이 1 만배 구도법회에 참여하고 있다. 기복불교에서 수행불교로 가는 현상을 대변한다”고 말했다.

“딱 딱 딱” 다시 죽비소리가 울렸다. 대중들은 각자의 좌복으로 돌아가 합장배례한다. “나무아미타불” 힘찬 염불소리가 법당을 울린다. 도피안사는 동안거 결재기간 중 매일 108 배 참회정진에 이어 2006 년 2 월 12 일에는 해제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 1 월 7 일 성도재일 정진주간 다채로운 행사

“철야 정진하며 깨침의미 공부”

음력 12 월 8 일은 성도재일이다. 불교의 4 대 명절 중 하나로 꼽히는 성도재일은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날. 전국 각 사찰에서는 부처님의 고행과 깨침의 의미를 되돌아보며 철야정진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혜스님)는 오는 31일부터 1 월 7 일까지를 성도재일 주간으로 정하고 1 주일간 정진한다. 6 일 오후 7 시부터 7 일 오전 4 시까지는 철야정진을 하며 7 일 오전 11 시 법왕루에서는 봉은사 회주 종범스님(중앙승가대 총장) 초청법회도 열린다.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스님)와 도선사(주지 혜자스님)도 31일부터 입재식을 갖고 성도재일 일주일 정진에 들어간다.

대구사원주지연합회(회장 법혜스님, 대각사 주지)는 오는 1 월 7 일 오후 2 시 대구시민체육관에서 성도재일 연합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종립학교 학생 10 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며, 각 사찰 우수신도 표창과 상패를 수여한다. 이와 함께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이 법문할 예정이다. 조계종 비구니스님들의 모임인 대전 청림회(회장 영진스님, 용화사 주지)도 같은 날 오후 2 시 충남대 정심화 국제문화회관에서 20 회 성도재일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광주사암연합회(회장 혜향스님, 향림사 주지)는 오는 1 월 4 일 오후 7 시 광주 광산구민회관에서 성도재일 기념법회와 광산구불교협의회 창립법회를 함께 봉행한다. 한편 수원포교당(주지 성관스님)은 성도재일 철야정진에 앞서 1 월 6 일 합창단 공연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전국의 많은 사찰에서 철야용맹정진과 기념법회를 진행한다.

- 불교신문에서 발췌 -

---

### Year 2549 Buddha's Enlightenment Day Schedule - Overnight Intensive Meditation Retreat-

- 1) Meditation (Zazen)
- 2) The 108 Prostrations of Repentance
- 4) Walking Meditations and Stretching
- 5) Eat The Rice Porridge
- 6) Discussion during the Tea time: Meditation and Sutras

**Date & Time:** start from Jan. 7. 06 ( 9 pm.) to Jan. 8. 06 (6 am.) – according to the lunar calendar  
**Enlightenment Day (12<sup>th</sup> month, 8<sup>th</sup> day)**

**Fee:** Free

**Who should be coming:** invite for everybody who interested in meditation and Buddhism.  
**Where:** Buddhana Temple Main Hall

#### 성도재일 철야 참선 정진 법회 안내

일시: 2006 년 1 월 7 일 저녁 9 시부터 다음날 1 월 8 일 아침 6 시 회향  
참가비: 무료  
프로그램: 좌선, 행선, 108 대참회, 유미죽 공양, 다도, 토론 (선과 교리)  
장소: 불국사 법당

## 법회소식 NEWS

- 2006년 갖는 첫 법회는 1월 1일 일요일 11시에 갖습니다. 부처님전에 떡국 공양도 올리고 세배도 올리는 세알법회입니다. 오후에는 웃놀이도 있습니다.
-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시고 중생제도를 하신지 올해로 2549 번째 성도재일을 맞이 하는 해 입니다. 이날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날로 행사는 철야 정진을 통해 모든 불자들이 마음에 불성을 밝히는 날입니다.매년 불국사에서서는 성도재일을 맞이해서 철야 정진을 거행 합니다. 성도재일은 음력 12월 8일 이고, 양력으로는 2006년 1월 7일 토요일 입니다.  
토요일 저녁 9시에 시작하여 다음날 6시에 회향하는 행사는 “법문, 참선, 자비수참, 요가, 행선, 다도, 토론, 유태극 공양”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 그동안 불국사 식구들과 동고동락했던 대혜거사님 가족과 월성거사님 가족분들이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불국사에서서는 간단히 송별회를 1월 8일 불국사 회장님이신 홍범 문정모 회장님의 주최하에 갖습니다. 많은 신도님들의 동참하셔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두 가족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길 축복해 주십시오.
- 12월 까지 뉴올리언즈 카트리나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모금을 한 결과 420불이 모금 되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내아픔처럼 여기는 마음에서 측은지심이 생기고 이것을 바탕으로 자비심이 생기고 또한 실천함이 있어야 선업을 쌓는 것입니다. 동참해 주신 불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동참해 주신 불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좋은 날을 택해서 420불은 적십자사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 성도재일이 끝난 1월 둘째주부터 부처님 오신날 연등 제작에 들어 갑니다. 그 첫단계로 연잎을 비비는 작업을 약 석달간 합니다.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께서는 불국사 총무님께 연락주십시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기다립니다.
- 불국사 후원회에서는 12월 24일 통도사 선방으로 대중공양을 다녀 왔습니다. 통도사 선방에 현금 3백만원과 홍시 10상자를 이날 전달 했습니다. 스님들 정진 열심히 하셔서 중생제도 부탁드립니다.
- 2006년 달력시주자: 안소혜 가족  
도서 (약 50만원 상당), 사경책 (부모은중경 20권, 관세음보살보문품 20권), 향 시주 동참자: 김일태 교수님, 윤찬용, 송심섭

-12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25번 신사생 김창일, 164번 참진후인 최치남 영가, 199번 무술생 김길호, 201번 임인생 임금연, 204번 무술생 김종학, 205번 임인생 백은경, 206번 계해생 김강인, 207번 병인생 김태형, 229번 대승행 박인장, 244번 을축생 안규환, 245번 무진생 안진수, 256번 임진생 정후시, 257번 갑오생 문수월 김영희, 258번 병인생 정수련, 259번 무진생 정호욱, 293번 임오생 홍순기, 294번 기축생 신안자, 295번 계축생 홍제광, 296번 을묘생 홍주아, 297번 정사생 홍재민.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2째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 두분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한 평 불사 동참자 : 김인순, 박순자, 고수정, 백련화 김효례, 윤재훈, 정충식

- 부다나라 템플(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BUDDHANARA TEMPLE)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니다.